



# 論語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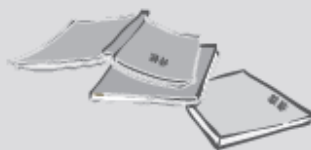
논어



# 論語

## 1차시

### 논어(論語)의 성격과 역사 공자(孔子)의 생애



與朋友交而不信乎。傳不習乎。弟子入則孝。

巧言令色。鮮矣仁。學而時習之。不亦說乎。有朋自遠方來。

其爲人也孝弟。而好犯上者。鮮矣。不好犯上。而好作亂者。未之有也。君子務本。本立而道生。

孝弟也者。其爲仁之本與。吾日三省吾身。爲人謀而不忠乎。與朋友交而不信乎。傳不習乎。人不知而

不亦君子乎。其爲人也孝弟。而好犯上者。鮮矣。不好犯上。而好作亂者。未之有也。君子務本。本立而道生。

# 1차시 논어(論語)의 역사

논어(論語)의 성격

논어(論語)의 역사

공자(孔子)의 생애

## 논어(論語)의 역사

- 공자와 제자들의 말씀을 기록
- 공자의 손자인 공급(孔伋)이 죽은 BC400년 전 완성
- 진시황의 분서갱유(焚書坑儒)사건으로 잠시 주춤



A decorative border with a repeating geometric pattern surrounds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. Three horizontal lines are drawn across the middle of this area, suggesting a space for writing or notes.

# 論語

7차시

제3편 八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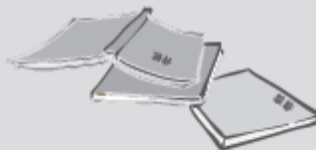
⋮

4장

5장

12장

13장



與朋友交而不信乎。傳不習乎。弟子入則孝。

巧言令色。鮮矣仁。學而時習之。不亦說乎。有朋自遠方來。

其爲人也孝弟。而好犯上者。鮮矣。不好犯上。而好作亂者。未之有也。君子務本。本立而道生。

孝弟也者。其爲仁之本與。吾日三省吾身。爲人謀而不忠乎。與朋友交而不信乎。傳不習乎。人不知而

不亦君子乎。其爲人也孝弟。而好犯上者。鮮矣。不好犯上。而好作亂者。未之有也。君子務本。本立而道生。

## 7차시 제3편 八佾

### 3편 4장

林放問禮之本，子曰，"大哉。問！禮，與其奢也，寧儉，喪，與其易也，寧戚。"

임 방 문 예 지 본 자 왈 대 재 문 예 이 기 사 야 녕 검 상 여기 이야 녕 직

[번역] 임방(林放)이 예(禮)의 본질에 대하여 여쭙었다. 공자가 말하였다. "대단한 질문이구나! 예의(禮儀)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, 상례(喪禮)는 격식을 잘 갖추기 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."

林放問禮之本，子曰，"大哉。問！禮，與其奢也，寧儉，喪，與其易也，寧戚。"

### 3편 5장

子曰，"夷狄之有君，不如諸夏之亡也。"

자 왈 이 직 지 유 군 불 여 제 하 지 망 야

[번역] 공자가 말하였다. "문화가 낙후된 오랑캐 나라에 임금(정치제도)이 있어 봐야 문화가 월등한 중국 땅에 임금(정치제도)이 없는 것만 못하다."

子曰，"夷狄之有君，不如諸夏之亡也。"

---



---



---

3편 12장

祭如在，祭神如神在。子曰，"吾不與祭，如不祭。"

제 어 제 제 신 어 신 재 자 왈 오 불 어 제 어 부 제

[번역] 공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마치 조상이 앞에 계신 듯하였고, 신(神)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는 마치 신이 앞에 계신 듯하였다. 공자가 말하였다. "내가 직접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."

祭如在，祭神如神在。子曰，"吾不與祭，如不祭。"

3편 13장

王孫賈問曰，"與其媚於奧，寧媚於竈，何謂也？"子曰，"不然。獲罪

왕 손 가 문 왈 어 기 미 어 오 념 미 어 조 하 워 야 자 왈 불 연 죄 죄

於天，無所禱也。"

어 천 무 소 도 야

[번역] 위(衛)나라 실권자인 왕손가(王孫賈)가 물었다. "형식적으로는 높이 떠받들어지나 제사의 주 대상이 아닌 안방 아랫목 신(神: 즉, 위나라 임금)에게 아첨하기보다, 차라리 비천하나 제사의 주 대상인 부뚜막 신(神: 즉, 왕손가 자신)에게 아첨하는 것이 낫다' 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" 공자가 말하였다. "당치도 않소.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소."

王孫賈問曰，"與其媚於奧，寧媚於竈，何謂也？"子曰，  
"不然。獲罪於天，無所禱也。"

Decorative border with a grid of small squares and three horizontal lines for writing.

